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광둥(广东)성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이상훈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김홍원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최지원 연구원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광둥(广东)성

요약

- ▶ [광둥성 내수용 수입] 광둥성의 내수용 수입은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관련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음.
 - 2013년 이후 광둥성 총수입 중 내수용의 비중이 가공무역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 평균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
 - 광둥성은 가공단계별로 중간재,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입의 비중이 높음. 그 밖에 최종재 중 △ 가정용 식음료품 △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 비내구소비재의 중국 내 수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임.
 - 업종별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휴대폰 제조에 쓰이는 집적회로,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입이 주를 이룸.
- ▶ [한국의 수출]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둥성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고 있음. 주요 수출품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관련 부품·부분품임.
 -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은 내수용 특화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메모리나 프로세서, 컨트롤러 등과 같은 집적회로 반도체 부품을 위주로 수출함.
 - 광둥성 총수입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나, 내수용 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정체 상태를 보임.
 -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품목 모두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광둥성 수입시장의 변화에 맞춰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패턴에서 내수용 수출 확대에 주력해야 하고, 수입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내수용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
 - 광둥성 수입구조는 내수용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현지 내수용 수입시장을 겨냥한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나 기타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급요.
 - 최종재 중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와 가정용 식음료품, 비내구소비재 등 소비재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식음료품과 비내구소비재의 경우 중국 내에서도 광둥성을 통한 수입 비중이 크므로, 광둥성을 해당 품목 수출의 거점 지역으로 삼고 시장 개척 및 유통망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 또한 가공식품 등 소비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물류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광둥성의 국제전자상거래(해외직구) 시범사업과 같은 해당 지방정부의 소비 관련 육성정책을 적극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긴급요.
 - 광둥성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둥성 등 다른 지역을 통해 수입한 뒤 중국 내 육상물류를 이용하여 광둥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비 증가나 유통기한 단축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한 통관 간소화 촉진, 중국 내 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광저우(广州)시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육성 및 장려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통관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고,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시장개척 전략의 모색이 긴급요.



중국 권역별 · 성별 기초자료 15-07

차 례

1. 서론
2.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 가. 가공단계별 수입시장
 - 나. 업종별 수입시장
3.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현황
 - 가.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
 - 다. 업종별 내수용 수출
4. 주요국의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 가. 주요국의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다. 업종별 경쟁 현황
5.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본고는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시리즈의 하나로,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을 분석

- 중국 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교역특성이 상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 지역(省)별 내수용 수입시장 동향과 변화 추이를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
- 중국 내 주요 지역(省)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수입 동향과 수입시장 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간의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의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동북의 4대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로 한국의 내수용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省)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

광둥성 개황

- 광둥성은 31개 성(省)급 지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 광둥성의 주장(珠江)삼각주는 환발해, 장강(长江)삼각주와 더불어 중국 3대 경제권을 형성
- 2014년 광둥성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 7,81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10.7%를 차지하며, 25년 연속 전국 1위 기록
- 2차 산업(49.8%)과 3차 산업(48.5%)이 고루 발달하였고, 제조업 중 특히 통신설비·컴퓨터·기타 전자설비 제조, 전기장비제조 등이 발달
- 광둥성 무역규모는 중국 전체의 28.9%를 차지하여 전국 1위이며, 2위인 장쑤성과의 격차가 4,669억 달러로 매우 큼.

<광둥성의 위치>



자료: 저자 작성.

<주요경제지표>

항목	2010년	2012년	2014년	중국 내 순위
GRDP(억 위안)	46,036	57,148	67,810	1
GRDP 성장률(%)	12.4	8.2	7.8	25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16,113	19,308	25,928	6
소비재 판매액(억 위안)	17,458	22,677	28,471	1
공업부가가치(억 위안)	20,338	22,721	28,189	-
FDI(억 달러)	203	235	431	3
수출입 총액(억 달러)	7,849	9,839	10,766	1
수입	3,317	4,099	4,305	1
수출	4,532	5,741	6,46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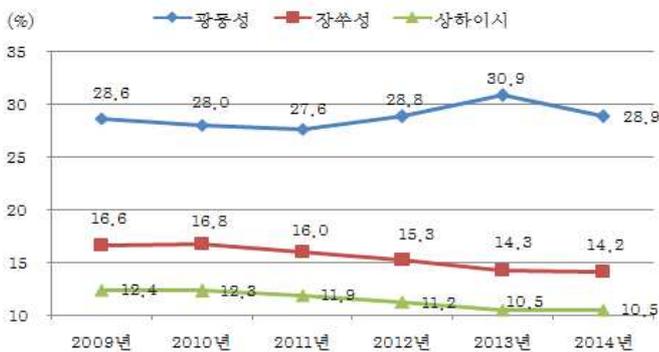
주: 수출입 통계는 통계국과 해관통계 간 일부 차이가 있음. 순위는 2014년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에서의 순위.

자료: 广东统计信息网; 中国统计局; CEIC; 한국무역협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5. 11. 9~11. 30).

1) 대부분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과 달리 일반무역은 관세를 납부하고 거래되는 일반적인 무역방식임. 일반무역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가공단계를 거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내수용 수입(또는 수출)'이라는 용어로 대체함.

- [대외무역] 2014년 광둥성의 교역규모는 1조 766억 달러로, 2009~14년 중 연평균 13.5% 증가함. 최근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확대 추세임.
- 주요 수출대상국은 △ 홍콩 △ 미국 △ 일본 △ 한국 △ 베트남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 대만 △ 한국 △ 일본 △ 미국 △ 말레이시아임.
- 광둥성의 대표적인 교역품목은 전기기계와 첨단기술제품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두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과 광둥성 간 무역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광둥성 전체 교역액 중 한국의 비중은 6.2%로 3위임.²⁾
- 특히 한국은 광둥성의 주요 수입대상국(2위)으로, 2014년 광둥성 총수입의 10.8%를 차지함.

그림 1. 중국 전체 무역액 대비 광둥성의 비중 추이



자료: CEIC.

그림 2. 한국과 광둥성 간 무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총수입] 2014년 광둥성 총수입은 4,369억 달러로 전국 1위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둔화세를 보임.
- 광둥성의 총수입은 2009~14년 중 연평균 10.4%씩 성장.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총수입 증가율(13.4%)을 하회함.
- 20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2010년 30.7% → 2012년 4.6% → 2014년 -4.0%)
- 최근 5년간 광둥성 총수입의 증가는 일반무역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함.
- 2009~14년 광둥성 가공무역은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일반무역은 연평균 20.2% 확대됨.
- [무역방식별 수입] 광둥성은 최근 일반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 패턴을 보임.
- 2009년 광둥성의 전체 무역 중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의 비중은 각각 49.8%, 33.4%였으나, 2014년에는 일반무역 비중(51.1%)이 가공무역 비중(45.7%)을 5.4%p 상회함.
- 특히 2013년 일반무역은 전년대비 무려 73.7%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18.9%p 증가
- 이는 가공단계별로 일차상품 중 연료 및 운할유, 중간재 중 자본재 부품과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 다만 중국 평균과 비교해볼 때 광둥성의 가공무역 비중은 여전히 높고 일반무역 비중은 낮아, 광둥성을 가공무역 중심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14년 광둥성의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의 비중은 중국 평균보다 각각 18.9%p 높고, 5.5%p 낮음.

2) 2014년 광둥성의 국가별 무역비중은 △ 홍콩(20.8%) △ 미국(11.1%) △ 한국(6.2%) 순임.

그림 3. 광둥성의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의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중국 해관통계; 广东省统计信息网.

표 1. 광둥성의 무역방식별 수입액

(단위: 억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수입	2,665	3,483	3,947	4,129	4,550	4,369
일반무역	891	1,193	1,371	1,386	2,408	2,234
가공무역	1,328	1,705	1,962	2,049	2,033	1,997
기타	445	585	615	694	109	138

자료: 중국 해관통계; 「2009~14년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가. 가공단계별 수입시장

■ [총수입 구조] 광둥성 총수입은 가공단계별로 볼 때 중간재 수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입에 특화됨.

- 2014년 광둥성 총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4.4%를 차지하며, 이 중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광둥성 총수입의 증가율(10.4%)과 비슷하며, 중국 내 비중은 37.5%로 전국 1위임.
- 다음으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24.2%)이 높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광둥성 총수입 증가율과 비슷함.
- 최종재 수입은 총수입의 22.3%를 차지하며, 최종재 중 규모 면에서는 자본재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 성장률 면에서는 소비재가 앞섬.
- 최종재 수입 중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8.2%, 4.1%로 자본재가 최종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다만 소비재의 연평균 증가율은 14.3%로 자본재의 연평균 증가율을 4.6%p 상회하며 특히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가정용 식음료품의 증가율이 높음.
- 일차상품의 비중은 13.3%로 최근 5년 연평균 12.0%씩 증가하였고, 특히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과 미가공 연료·윤활유 수입이 비교적 크게 확대됨.

■ [내수용 수입구조] 총수입 구조와 유사하나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차상품 비중이 최종재 비중을 상회함.

- 2014년 광둥성 내수용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44.2%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20.2%p 낮으나, 중국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중간재 중심의 무역구조를 보임.
- 광둥성 내수용 중간재 수입 비중은 중국 평균보다 8.2%p 높은 반면, 일차상품과 최종재 수입 비중은 각각 17.7%p, 2.4%p 낮음.
- 내수용 중간재 중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여전히 최대 수입 품목으로,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3.3%)은 중국



평균을 13.0%p 상회함. 중국 내 광둥성 수입 비중은 45.4%를 기록

- 내수용 일차상품의 비중은 21.2%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9%p 상회하며, 특히 미가공 연료·윤활유 비중(10.9%) 이 크고 증가율(25.6%)도 높음.
- 내수용 최종재 수입 비중은 18.0%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3%p 하회하며, 세부적으로는 자본재 수입 비중 (12.8%)이 소비재 수입 비중(5.2%)보다 7.6%p 높음.
- o 소비재 중 가정용 식음료품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중국 평균과 비교해 1.2%p 높았음. 반면에 승용 차의 비중은 0%로 중국 평균(5.1%)에 크게 못 미침.

■ [중국 내 비중] 광둥성은 내수용 수입 중 중간재와 최종재의 일부 품목에서 전국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광둥성 내수용 가공단계별 품목의 중국 내 비중을 보면 △ 자본재 부품·부분품(45.4%) △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31.2%) △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29.5%) △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24.2%) △ 비내구소비재(20.2%) 등이 특히 높 았음.
- 광둥성은 중간재 중심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 내 가정용 식음료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비내구소비재 등 일부 최종재 수입시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o 해당 품목들은 절대적인 수입규모는 크지 않으나 광둥성의 일반무역 비중(20.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광둥성 에 수입이 집중된 품목이었음.

표 2. 광둥성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

분류	광둥성 총수입			광둥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13.3	12.0	11.2	21.2	17.9	11.0	38.9	16.7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1.7	17.7	15.1	3.3	27.9	15.9	4.2	18.4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4.3	8.3	9.0	7.1	7.8	9.1	15.6	12.3
미가공 연료·윤활유	7.3	13.3	12.1	10.9	25.6	11.4	19.1	20.8
중간재	64.4	10.1	30.1	44.2	15.4	24.8	36.0	11.8
반제품	26.8	9.5	25.2	19.0	11.8	17.3	22.1	10.5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5	4.7	17.3	0.8	8.0	18.4	0.9	7.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24.2	10.1	26.0	15.9	11.9	16.9	18.9	9.9
가공된 연료·윤활유	2.1	4.8	20.8	2.3	13.4	19.5	2.3	17.5
부품·부분품	37.6	10.4	34.9	25.3	18.6	36.8	13.8	14.0
자본재 부품·부분품	35.8	10.7	37.5	23.3	20.6	45.4	10.3	13.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1.8	5.2	14.7	2.0	4.2	11.6	3.5	14.4
최종재	22.3	10.5	23.0	18.0	14.9	17.8	20.4	16.8
자본재	18.2	9.7	28.1	12.8	14.5	23.9	10.8	10.5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7.3	9.7	29.6	12.4	17.0	24.2	10.3	12.0
산업용 운송장비	0.9	9.9	14.5	0.4	-12.4	18.3	0.5	-7.0
소비재	4.1	14.3	12.7	5.2	15.8	10.9	9.6	27.7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7	21.8	28.0	1.3	24.4	31.2	0.8	28.6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1.3	20.5	24.2	2.1	19.8	29.5	1.4	27.4
승용차	0.0	-41.2	0.2	0.0	-33.7	0.2	5.1	31.9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36.3	18.2	0.0	38.6	19.7	0.0	40.6
내구소비재	0.3	17.3	16.4	0.3	16.7	14.1	0.4	20.8
반내구소비재	0.7	12.7	20.1	0.5	11.9	10.9	0.9	23.2
비내구소비재	1.0	19.1	19.4	1.0	18.0	20.2	1.0	18.0



표 2. 계속

분류		광둥성 총수입			광둥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미분류		0.0	2.9	6.6	16.5	351.8	70.8	4.7	99.6
전체	비중(또는 증가율)	100.0	10.4	23.2	100.0	20.2	20.1	100.0	15.7
	금액(억 달러)	4,369	-	-	2,234	-	-	11,095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품목별 내수용 수입] 품목별로 전자·통신, 석유화학, 금속 관련 품목 수입이 가장 많고 소비재 중 유아용 조제식품 등 가공된 식품료품의 비중이 비교적 큼(표 3 참고).

-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입의 92.3%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관련 품목이며, 반제품의 경우 화학제품(41.0%)과 1차 금속 제조(14.0%)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음.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관련 품목의 수입액은 479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21.9%)은 광둥성 내수용 수입 증가율(20.2%)을 상회
- 특히 집적회로 반도체 부품이 많으며 HS 코드 6단위 기준 휴대폰 부품의 일종인 △ IC-Bus Transceiver³⁾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 메모리 등이 상위 품목으로 꼽힘.
- 이는 광둥성에 대규모 휴대폰 제조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2014년 광둥성 휴대폰 생산량은 9.2억 대로 중국 전체의 60%를 차지⁴⁾
- 미가공 연료·윤활유 수입액은 242억 달러로 수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큼. 세부 품목별 수입은 석유와 역청유(208억 달러), 유연탄(16억 달러), 갈탄(12억 달러) 순임.
- 자본재 중 액정디바이스, 메모리 등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관련 품목의 수입이 11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40.8%)을 차지함.
- 소비재 중 가공된 식품료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유아용 조제식품(6억 달러), 정미(5억 달러), 냉동 절단육·설육(4억 달러) 등임.

표 3. 광둥성 내수용 시장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¹⁾		세부 업종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²⁾ (%)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	
일차상품 (21.2)	미가공 연료·윤활유(10.9)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4,270	100.0	25.6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7.1)	1차 금속 제조업	5,219	33.1	-2.3	
중간재 (44.2)	반제품 (19.0)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15.9)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14,562	41.0	10.7
		가공된 연료·윤활유(2.3)	1차 금속 제조업	4,965	14.0	-1.5
	부품부분품 (25.3)	자본재 부품·부분품(25.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50	97.7	15.0
최종재 (18.0)	자본재 (12.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2.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995	92.3	2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306	40.8	14.7
			8,756	31.6	18.8	

주: 1)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괄호 안의 수치는 광둥성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2) 해당 가공단계 세부류 중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3) 세계 HS 정보시스템(검색일: 2015. 11. 24).

4) 통신산업망(2015), 「广东省人民政府副省长温国辉:广东省是全国最大的信息产业基地」(검색일: 2015. 11. 24).

표 4. 광둥성의 내수용 부품·부분품 수입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코드(6단위)	품 목 명	수입액 (억 달러)	부품·부분품 내 비중(%)	해당 업종
1	8542.39	기타	138.5	24.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	8541.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91.3	16.2	상동
3	8542.32	메모리	68.5	12.1	상동
4	8517.70	부분품	58.8	10.4	상동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9.3	3.4	상동
6	8542.33	증폭기	17.3	3.1	상동
7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 다이오드	13.6	2.4	상동
8	8536.90	그 밖의 기기	11.0	1.9	상동
9	8541.60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	7.3	1.3	상동
10	8541.29	기타	7.2	1.3	상동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업종별 수입시장

■ [총수입 구조] 업종별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음료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은 수입 규모는 작지만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음.

- 최근 5년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수입 비중은 40% 이상을 유지, 총수입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10.3%)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0.4%)과 유사한 수준임.
- 그 밖에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9.8%)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7.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5.8%) △ 전기장비제조업(4.7%) 순으로 비중이 컸으나 10% 미만임.
- 이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수입이 연평균 51.9% 증가하며 수입 비중이 확대된 반면,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5.2%로 둔화됨.
- 광둥성 총수입 내 비중은 작지만 중국 내 비중이 큰 업종으로 △ 음료 제조업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 섬유제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 음료 제조업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담배 제조업은 연평균 20~30%의 증가율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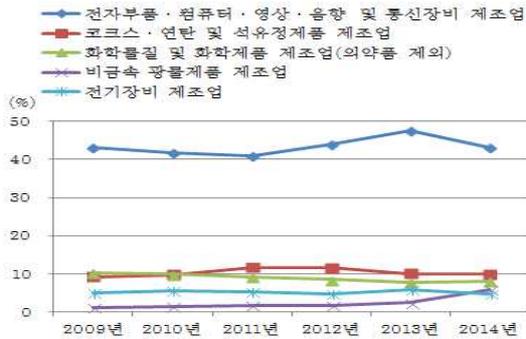
■ [내수용 수입구조] 업종별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으며, 총수입 구조와 비교해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 비중이 큼.

- 내수용 수입에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26.5%)은 중국 평균(9.6%)과 비교해 16.9%p 높고, 연평균 증가율(20.3%)도 중국 평균보다 5.4%p 높음.
- 그 밖에 상위 5대 수입 업종에는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13.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7.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5.1%), 식료품 제조업(4.7%)이 포함됨.
- 내수용 수입 상위 5대 업종 중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10.0%)이 상대적으로 낮음.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은 광둥성 내 수입 2위 업종이나 중국 평균 수입 비중(22.1%)보다 낮은 특징을 보임.
- 금속 광업(1.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7%)의 수입 비중은 중국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임.



그림 4. 광둥성의 주요 업종별 수입 비중 추이

(1) 총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2) 내수용 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5. 광둥성의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업종별)

분류	광둥성 총수입			광둥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1.8	18.7	15.5	3.6	28.7	16.3	4.4	18.9	
광업	0.7	15.8	2.2	1.3	12.7	2.4	11.2	12.3	
금속 광업	0.5	15.5	1.7	1.0	11.9	1.9	10.6	12.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2	16.6	11.6	0.3	15.5	11.4	0.5	19.6	
제조업	97.4	10.2	21.7	78.5	15.6	19.8	79.7	14.9	
식품 제조업	2.7	16.2	3.7	4.7	19.2	24.7	3.5	21.9	
음료 제조업	0.2	28.3	28.2	0.2	27.6	26.8	0.1	22.2	
담배 제조업	0.1	29.3	22.2	0.1	575.9	12.8	0.1	16.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3.9	24.1	0.8	28.4	16.5	0.9	23.6	
의복의복액세서라모피제품 제조업	0.3	9.3	16.9	0.2	17.1	11.8	0.4	27.9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7	8.1	26.1	0.5	12.7	14.2	0.7	21.9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0	33.4	19.0	1.8	42.7	22.0	1.6	33.5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0	5.6	20.5	1.3	9.9	18.0	1.4	8.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	19.3	25.4	0.1	30.9	30.9	0.1	15.8	
코르크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9.8	11.9	13.5	13.7	23.7	12.5	22.1	2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9	5.2	20.2	7.6	10.0	15.9	9.7	10.6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6	22.0	13.8	0.7	13.1	16.7	0.9	1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12.4	20.7	1.2	18.4	16.2	1.4	17.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8	51.9	56.0	0.5	27.9	20.7	0.5	20.8	
1차 금속 제조업	4.4	-2.0	22.1	4.6	-1.9	20.7	4.4	-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0.7	11.5	20.1	0.6	13.3	13.7	0.9	1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43.2	10.3	40.3	26.5	20.3	55.9	9.6	14.9	
의료정밀광학기가시계 제조업	2.6	14.5	20.2	2.3	21.3	15.7	3.0	16.1	
전기장비 제조업	4.7	9.8	34.3	2.2	12.0	22.9	1.9	7.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6	9.3	18.4	5.1	16.5	15.8	6.5	10.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3	-1.3	5.6	1.7	-0.1	4.2	8.0	2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	8.8	15.4	0.9	-5.5	16.6	1.1	0.5	
가구 제조업	0.1	7.6	13.3	0.1	4.6	14.9	0.2	16.2	
기타 제품 제조업	1.1	9.6	41.6	1.1	21.3	38.2	0.6	15.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13.4	34.6	0.1	-13.4	42.8	0.0	-0.4	
미분류	0.0	-	0.0	16.5	1240.4	71.0	4.7	102.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10.4	23.2	100.0	20.2	20.1	100.0	15.7
	금 액(억 달러)	4,369	-	-	1,963	-	-	11,095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3.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현황

가.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 현황

- [총수출 구조] 한국의 대광둥성 총수출은 최근 5년간 크게 둔화되었고, 내수용 수출은 총수출과 유사한 감소 패턴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큰 폭의 등락세를 보임.
 - 2014년 한국의 대광둥성 총수출은 473억 달러이고, 총수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 36.3%에서 2014년에 8.5%로 23.8%p 하락함.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 증가율도 둔화되었는데, 그 폭이 대광둥성 총수출 둔화폭보다 컸음(대중국 총수출 증가율: 2010년 34.9% → 2012년 3.0% → 2014년 6.1%).
 - 2014년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은 125억 달러이고, 내수용 수출 증가율은 2013년 전년대비 33.2% 상승한 데 비해 2014년 -7.4%로 크게 위축됨.
- [무역방식별]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은 가공무역 중심이며, 내수용 수출 비중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내수용 수출 비중은 2009년부터 3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대광둥성 수출 중 내수용 수출의 비중은 20%대에 머물고 있음(그림 6 참고).
 -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비중은 2013년 31.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26.5%로 감소
 - 같은 기간 광둥성의 대세계 총수입 중 내수용 수입 비중은 한국의 내수용 수출 비중을 약 10% 웃돌아, 특히 한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6.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광둥성의 비중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

■ [총수출 구조] 한국의 대광둥성 총수출은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의 자본재 부품·부분품과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최종재의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음.

- 대광둥성 총수출 중 중간재가 80.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가 각각 47.9%, 30.4%를 차지함.
- 자본재 부품·부분품은 광둥성 내 수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비중도 29.6%로 높아, 대광둥성 수출 집중도가 높은 품목임.
- 자본재 부품·부분품 및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를 제외한 여타 품목은 1% 안팎으로 낮은 수준임.
- 다만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의 2009~14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03.6%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최종재 수출 비중은 19.5%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가 1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은 수출 비중이 0.2%에 불과했으나, 수출 증가율은 33.0%로 가장 높았음.

■ [내수용 수출구조] 총수출과 유사하게 중간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평균과 비교할 때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출에 치중되어 있음.

- 내수용 수출 중 중간재가 8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자본재 부품·부분품과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가 각각 54.9%, 23.9%의 비중을 차지함.
- 대광둥성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수출 비중은 중국 평균에 비해 29.8%p 높아 광둥성에 수출이 집중(대중 수출의 45.8%)
- 반면에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는 중국 평균과 비교해 비중도 낮고, 연평균 증가율도 낮음.
- 최종재 중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가 1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소비재에 대한 수출 비중은 1.2%에 불과
- 소비재 중 비내구소비재,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반내구소비재의 비중은 각각 0.4%, 0.3%, 0.3%에 불과하나 연평균 증가율은 광둥성 평균(16.5%)을 상회

그림 7.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 구조 변화(가공단계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6. 한국의 대광둥성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광둥성 총수출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0.2	34.1	12.8	0.5	27.2	9.4	1.1	3.9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2	0.0	0.0	0.0	0.0	64.8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2	34.1	12.9	0.5	27.2	9.4	1.1	3.9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0.0	0.0	0.0	0.0	0.0	0.0	-
중간재	80.3	15.3	25.2	81.5	15.4	20.9	78.6	12.6
반제품	31.8	17.4	22.3	25.9	11.2	11.0	46.6	10.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103.6	5.3	0.0	86.3	6.5	0.0	37.9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0.4	19.1	23.7	23.9	10.1	11.0	42.7	10.2
가공된 연료·윤활유	1.4	-2.3	9.8	2.0	35.2	10.4	3.8	9.8
부품·부분품	48.5	14.0	27.5	55.6	17.7	36.3	32.0	16.8
자본재 부품·부분품	47.9	14.1	29.6	54.9	17.7	45.8	25.1	16.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6	11.0	4.1	0.7	17.6	2.2	6.9	16.8
최종재	19.5	17.6	23.9	17.9	22.6	17.5	20.2	16.0
자본재	19.0	17.5	26.3	16.8	22.7	22.1	14.6	14.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9.0	17.7	26.3	16.8	22.7	22.2	14.5	15.2
산업용 운송장비	0.0	-52.6	0.9	0.0	15.1	0.1	0.1	-8.0
소비재	0.5	21.1	5.8	1.2	21.5	4.3	5.7	19.5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7.2	0.4	0.0	-50.4	0.0	0.0	23.7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2	33.0	15.7	0.3	22.7	10.9	0.7	32.2
승용차	0.0	-30.1	0.1	0.1	33.7	0.7	2.8	14.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11.1	0.4	0.0	-55.4	0.0	0.0	17.4
내구소비재	0.0	28.3	4.1	0.1	14.7	3.6	0.7	41.1
반내구소비재	0.1	15.7	9.2	0.3	25.0	8.5	0.6	19.4
비내구소비재	0.2	20.3	10.3	0.4	18.3	10.4	0.8	22.6
미분류	0.0	0.0	0.0	0.0	0.0	0.0	0.1	-28.4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15.7	24.9	100.0	16.5	20.1	100.0	13.0
금액(억 달러)	473	-	-	125	-	-	625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품목별 내수용 수출] 세부 품목별로 전자·통신, 석유화학, 금속기계 관련 품목의 수출 비중이 크고, 소비재 중에서는 식료품 중 유아용 조제식료품 등의 수입 규모가 비교적 큼(표 7 참고).
- 내수용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출의 97.3%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이며, 반제품에서는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조 관련 품목에서 수출 비중이 높아 각각 56.3%, 23.1%를 차지함.
 - 광둥성 대세계 내수용 수입의 주요 품목과 유사하고 세 업종과 연관된 품목 수입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음.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수입액은 약 67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은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증가율(20.2%)을 하회
 - HS코드 6단위 기준 △ 메모리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 IC-Bus Transceiver 등 휴대폰 부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광둥성 내수용 수입 상위 10대 품목과 유사(표 8 참고)
- 자본재 중 액정디바이스, 입출력장치, 카메라 등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50.9%)을 차지함.
- 소비재 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아용 조제식료품(2,000만 달러), 비내구재 소비재 중 접착제(1,700만 달러) 등이 주요 품목으로 꼽힘.

표 7.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¹⁾			세부 업종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²⁾ (%)	2009~14 연평균 증가율(%)	
중간재 (81.5)	반제품 (25.9)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23.9)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689	56.3	9.0	
			1차 금속 제조업	692	23.1	4.8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274	9.1	31.3	
	부품·부분품 (55.6)	자본재 부품·부분품 (54.9)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6,699	97.3	17.6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89	1.3	18.0	
최종재 (17.9)	자본재 (16.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6.8)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1,073	50.9	18.9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703	33.4	28.7	
	소비재 (1.2)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3)	식품 제조업	33	83.0	19.2	
			승용차(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100.0	33.7
		반내구소비재(0.3)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17	49.7	2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29.4	22.3	
		비내구소비재(0.4)	비내구소비재(0.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0	62.6	24.2
				의료·정밀광학기가사계 제조업	8	27.5	4.6

주: 1)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괄호 안의 수치는 對광둥성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해당 가공단계 세분류 중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8. 한국의 대광둥성의 내수용 부품 및 부분품 수출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억 달러)	부품·부분품 내 구성비(%)	해당 업종
1	8542.32	메모리	22.5	3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6.8	24.2	상동
3	8542.39	기타	15.7	22.5	상동
4	8517.70	부분품	3.5	5.0	상동
5	8534.00	인쇄회로	2.2	3.1	상동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3	1.9	상동
7	8529.90	기타	1.2	1.7	상동
8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0.8	1.1	상동
9	8536.90	그 밖의 기기	0.5	0.8	상동
10	8542.33	중폭기	0.4	0.6	상동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중국 해관통계.

다. 업종별 내수용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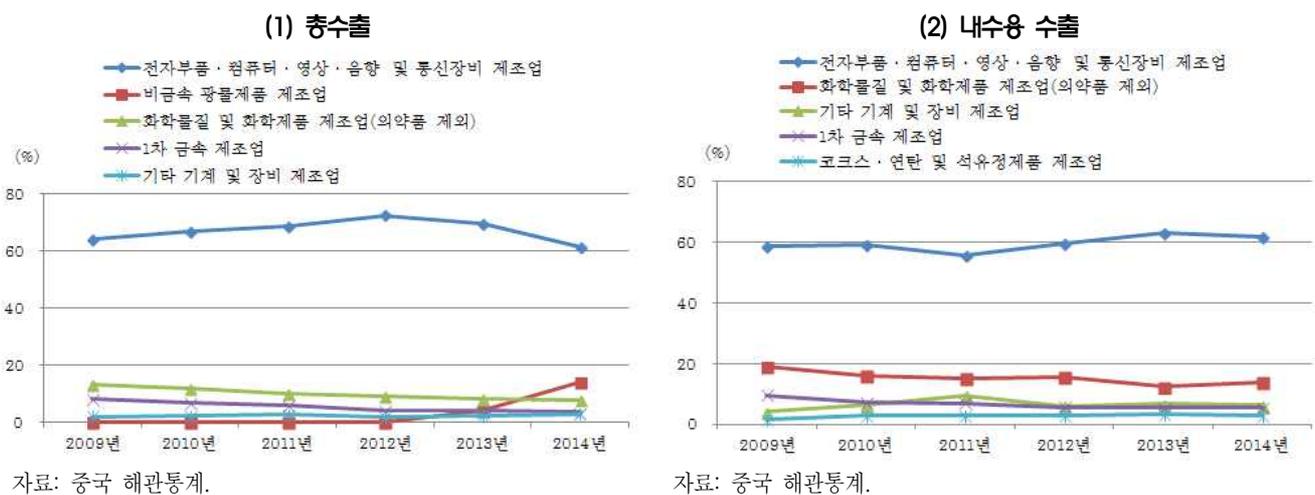
- [총수출 구조] 대광둥성 총수출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담배 제조업 등은 수입규모는 작지만 대중국 전체 수출 시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함.
- 2014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수출은 총수출의 61.6%를 차지하며, 중국 내 비중도 30.6%에 달해 특정 업종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매우 큼.

- 그 밖에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4.0%)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8.0%) △ 1차 금속제조업(3.6%)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3.1%)의 수출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한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0.6%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에 불과
-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담배 제조업은 대광둥성 총수출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품목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6%, 41.2%, 34.7%를 기록함. 이는 대광둥성 수출 집중도가 높은 업종들임.
- 다만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출은 최근 5년간 -0.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비중이 감소

■ [내수용 수출구조] 총수출과 유사한 수출 패턴을 보이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음.

-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 중 4개 업종이 동일하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대신 코르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포함
- 내수용 수출 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0%에 달함. 이는 중국 평균(23.9%)보다 38.1%p 높고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평균보다 2.9%p 높은 수준임.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상위 4대 업종 비중은 중국 평균보다 모두 낮는데, 이는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그림 8.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 구조 변화(업종별)



■ [중국 내 비중]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중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과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작지만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광둥성 주요 수출 업종으로 꼽힘.

- 두 업종의 중국 내 비중은 각각 29.5%, 24.3%로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비중보다 높아 광둥성이 해당 업종의 주요 수출 지역인 것으로 판단됨.
- 두 업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0.5%, 23.5%로 한국의 대광둥성 전체 내수용 수출 증가율(16.5%)을 상회함.

표 9. 한국의 대광둥성 업종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광둥성 총수출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총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0.0	15.8	18.0	0.0	5.6	13.7	0.1	29.1	
광업	0.0	19.0	1.3	0.0	19.2	1.4	0.3	14.4	
금속 광업	0.0	36.1	1.4	0.0	66.5	3.6	0.1	2.0	
비금속광물 광업	0.0	16.4	1.3	0.0	-0.9	0.6	0.2	21.5	
제조업	100.0	15.7	22.0	99.9	16.6	20.2	99.5	12.8	
식료품 제조업	0.2	30.0	0.3	0.3	17.0	9.4	0.6	31.2	
음료 제조업	0.0	34.7	10.0	0.1	63.7	10.0	0.1	24.0	
담배 제조업	0.0	30.9	34.7	0.0	0.0	0.0	0.0	13.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0.6	15.7	21.8	0.3	36.4	13.5	0.5	21.4	
의복의복액세서라모피제품 제조업	0.0	13.5	6.4	0.1	17.9	9.2	0.2	15.1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5	19.8	41.2	0.1	25.9	7.7	0.2	26.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	55.8	13.1	0.0	80.5	29.5	0.0	19.2	
펠트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3	-0.1	45.6	0.5	23.5	24.3	0.4	2.7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12.2	2.0	0.0	28.3	4.9	0.0	16.7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7	-0.5	8.2	2.9	30.6	8.8	6.6	10.1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8.0	4.9	13.1	13.8	9.3	9.5	29.2	10.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0	6.9	10.4	0.1	2.0	10.2	0.2	14.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26.7	19.0	2.3	30.2	18.5	2.5	1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0	200.6	59.1	0.3	29.0	13.9	0.4	25.1	
1차 금속 제조업	3.6	-1.9	22.0	5.5	4.4	17.7	6.3	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기구 제외)	0.3	14.0	6.0	0.5	15.8	5.5	1.8	1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61.6	14.8	30.6	62.0	17.7	52.0	23.9	14.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6	17.9	21.0	2.0	29.0	13.1	3.0	25.9	
전기장비 제조업	1.9	7.6	18.6	1.8	23.6	14.5	2.5	13.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	24.5	14.9	6.3	27.2	12.6	10.1	16.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6	17.5	3.5	0.5	27.5	1.2	9.1	1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	-7.1	4.7	0.3	10.2	6.7	1.0	6.5	
가구 제조업	0.0	21.5	0.7	0.0	-5.2	0.7	0.4	18.8	
기타 제품 제조업	0.1	16.9	14.9	0.1	23.1	5.8	0.4	45.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	-	0.0	-	-	0.0	-	
미분류	0.0	-	-	0.0	-	-	0.1	-26.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15.9	24.9	100.0	16.5	20.1	100.0	12.6
금액(억 달러)		473	-	-	125	-	-	625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4. 주요국의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가. 주요국의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광둥성 수입시장] 5대 주요국의 광둥성 시장 점유율은 총수입시장에서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내수용 시장에서는 오히려 축소됨.

- 2009년 광둥성 총수입에서 5대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은 43.2%에서 2014년 66.9%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만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짐.
 - o 2014년 대만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대비 각각 8.1%p 9.3%p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o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점유율 1위에서 3위로 하락하였고, 이에 반해 대만과 한국이 각각 1위와 2위로 상승
 - o 한국, 대만, 미국의 대광둥성 총수출은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과 독일의 연평균 총수출 증가율은 각각 3.2%, 0.1%에 그침.
- 2009년 광둥성의 내수용 시장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은 43.1%로 총수입 점유율과 비슷하였으나 2014년에는 점유율이 27.9%로 하락
 - o 주요 5개국 중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일본(-6.8%p), 독일(-3.8%p), 미국(-3.3%p)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크게 하락함. 특히 독일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0.4%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임.

■ [한국의 시장점유율] 광둥성 총수입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나, 내수용 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정체 상태를 보임.

- 광둥성 총수입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8.5%에서 2014년 17.8%로 크게 증가함.
 - o 2009년 한국은 5개국 중 대만, 일본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상승
- 2009년 광둥성의 내수용 시장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6.5%에서 2014년 5.6%로 다소 감소(주요국 중 3위)
 - o 같은 기간 주요국의 시장점유율도 모두 하락하였는데,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일본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일본과의 격차는 오히려 축소

표 10. 주요국의 광둥성 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광둥성 총수입						광둥성 내수용 수입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2009년	100.0	8.5	13.0	13.6	4.8	3.3	100.0	6.5	7.8	14.4	8.2	6.2
2010년	100.0	11.7	16.5	17.5	5.8	3.6	100.0	6.5	8.2	15.6	6.8	5.0
2011년	100.0	14.2	16.9	18.2	6.5	3.6	100.0	6.5	8.4	15.0	6.6	4.2
2012년	100.0	15.5	19.4	17.0	7.3	3.3	100.0	7.3	9.6	13.1	7.4	3.8
2013년	100.0	16.4	23.9	14.7	9.9	3.4	100.0	5.6	8.8	7.6	4.8	2.2
2014년	100.0	17.8	21.1	15.8	8.9	3.3	100.0	5.6	7.4	7.6	4.9	2.4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10.4	15.7	10.1	3.2	13.3	0.1	20.2	16.5	12.4	5.8	8.7	-0.4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가공단계별 점유율 현황] 일차상품은 미국, 중간재는 일본과 대만, 최종재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일차상품] 주요국 중 미국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점유율 격차가 소폭 확대

- 2009년 미국의 미가공 산업용 식품료품 시장점유율은 45.2%에 달하였으나, 2014년 15.2%로 크게 감소
 - 2009년 독일의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시장점유율이 13.6%로 가장 높았으나, 2014년 시장점유율이 4.3%로 대폭 감소함. 반면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1.6%로 증가
 - [중간재] 주요국 중 일본, 대만,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았으며, 일본은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한국과 대만은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009년 20.9%에서 2014년 15.7%로 감소
 - 부품·부분품 중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경우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으나 2014년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되었음.
 -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의 경우 2014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67.2%를 기록
 - [최종재] 일본, 미국,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2014년 이들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대비 다소 하락한 반면,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상승함.
 - 자본재 중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는 일본의 점유율이, 산업용 운송장비는 미국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중간재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종재와 일차상품 시장점유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14년 한국의 반제품 시장점유율은 7.7%로 일본 다음으로 높았으며, 부품·부분품의 시장점유율은 12.3%로 대만,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
 - 최종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0%에서 2014년 5.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자본재의 시장점유율 상승에 기인함.
 - 한국의 승용차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9년 0.4%에서 2014년 11.9%로 크게 상승

표 11.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가공단계별)

(단위: %)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6.5	7.8	14.4	8.2	6.2	5.6	7.4	7.6	4.9	2.4
일차상품	0.1	1.7	0.6	8.7	7.1	0.1	0.2	0.5	6.2	1.4
미가공 산업용 식품료품	0.0	0.0	0.0	45.2	0.0	0.0	0.0	0.0	15.2	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2	3.2	1.1	7.6	13.6	0.4	0.6	1.5	11.6	4.3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0.0	0.0	0.2	0.0	0.0	0.0	0.0	0.1	0.0
중간재	10.4	11.8	19.9	6.1	3.6	10.3	14.4	12.1	4.3	2.1
반제품	7.9	8.1	17.9	7.5	4.0	7.7	7.6	13.4	7.5	2.9
가공된 산업용 식품료품	0.0	0.0	0.1	1.5	0.2	0.0	0.0	0.0	3.2	0.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9.2	9.5	20.9	8.5	4.6	8.5	8.7	15.7	8.5	3.2
가공된 연료·윤활유	2.1	0.8	3.5	2.2	1.2	5.0	2.1	2.1	2.4	1.3
부품·부분품	12.8	15.7	21.9	4.7	3.2	12.3	19.5	11.1	1.8	1.6
자본재 부품·부분품	15.0	18.2	10.8	4.9	3.6	13.2	21.1	6.3	1.7	1.5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1.1	1.6	83.7	3.7	0.9	2.0	1.7	67.2	3.3	2.5
최종재	4.0	4.6	15.4	12.5	11.7	5.6	5.5	11.8	9.4	6.6
자본재	5.2	5.9	18.1	10.4	11.7	7.3	7.1	14.5	9.9	7.2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6.0	6.7	20.9	7.3	7.2	7.6	7.3	15.0	5.9	7.3
산업용 운송장비	0.0	0.0	0.4	31.4	41.3	0.0	0.0	2.0	n.a.	5.8

표 11. 계속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소비재	1.0	1.2	8.3	18.0	11.6	1.2	1.5	5.1	8.3	4.9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1	0.9	0.1	18.0	0.0	0.0	1.0	0.0	8.0	0.1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8	0.6	0.6	34.9	0.6	0.9	0.4	0.1	9.8	3.0
승용차	0.4	0.0	19.1	1.6	58.7	11.9	0.0	n.a.	59.9	26.0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2.3	17.2	34.0	1.8	0.0	40.5	6.1	13.8	1.5
내구소비재	1.7	1.6	3.4	7.5	4.7	1.5	1.1	1.7	4.2	3.6
반내구소비재	1.9	3.1	16.8	4.3	1.7	3.3	3.2	11.3	4.1	2.1
비내구소비재	2.1	2.2	17.6	11.3	11.5	2.1	2.2	11.8	6.0	15.8
미분류	0.0	0.0	0.1	0.8	0.0	0.0	0.0	0.0	0.2	0.0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MCA)⁵⁾ 분석 결과 한국은 중간재와 자본재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일차상품과 소비재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임.

- 한국은 중간재에서 시장비교우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품목으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대광둥성 중간재 수출은 모든 세부 품목들에서 2009년 대비 2014년 시장비교우위가 다소 강화
- 최종재의 경우 소비재는 지속적으로 비교열위를 나타낸 반면, 자본재는 2009년 비교열위에서 2014년 비교우위로 전환
- 자본재,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는 비교우위가 개선되면서 시장비교우위 품목으로 전환
-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비교열위를 보이는 가운데 승용차의 시장비교우위가 크게 강화

■ [가공단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2014년 대만은 중간재, 일본은 중간재와 최종재, 미국과 독일은 최종재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보임(표 12 참고).

- 일차상품에서는 미국만이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반면, 기타 국가들은 모두 비교열위를 나타냄.
- 중간재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과 일본이 비교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보임.
- 중간재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만이 가장 강한 시장비교우위를 보였으며, 일본은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서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냄.
- 자본재의 경우 대만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가장 큰 비교우위를 나타냄.
- 독일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에서, 미국은 산업용 운송장비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냄.
- 소비재의 경우 미국과 독일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내구소비재와 반내구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세부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
- 승용차의 경우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미국·독일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이나, 일본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진 반면

5) 시장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는 어느 국가의 특정 수출 품목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점유율과 달리 경제 및 수출 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 지표는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변형한 것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MCA_{jS}^i = \frac{X_{jS}^i / X_{jS}^i}{WX_{jS}^i / WX_{jS}^i} \quad (\text{단 } MCA_{jS}^i \text{ 는 } i \text{ 국 } j \text{ 상품 의 광둥성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X_{jS}^i \text{ 는 } i \text{ 국의 대광둥성 } j \text{ 상품 수출}$$

액, X_{jS}^i 는 i 국의 대광둥성 총수출액, WX_{jS}^i 는 전 세계의 대광둥성 j 상품 수출액, WX_{jS}^i 는 전 세계의 대광둥성 총수출액) RCA와 마찬가지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한국의 비교우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12. 주요국의 광둥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가공단계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일차상품	0.01	0.21	0.04	1.07	1.14	0.03	0.03	0.07	1.26	0.59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0	5.55	0.00	0.00	0.00	0.00	3.08	0.01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03	0.41	0.07	0.93	2.18	0.08	0.08	0.20	2.34	1.76
미가공 연료·윤활유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1	0.00
중간재	1.58	1.51	1.38	0.75	0.57	1.84	1.95	1.59	0.86	0.88
반제품	1.21	1.03	1.25	0.91	0.64	1.37	1.02	1.77	1.53	1.19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0	0.19	0.03	0.01	0.00	0.01	0.66	0.3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40	1.21	1.45	1.04	0.74	1.51	1.18	2.07	1.72	1.33
가공된 연료·윤활유	0.32	0.10	0.24	0.28	0.19	0.90	0.28	0.27	0.49	0.53
부품·부분품	1.96	2.00	1.52	0.58	0.51	2.20	2.64	1.47	0.37	0.64
자본재 부품·부분품	2.28	2.32	0.75	0.60	0.57	2.36	2.85	0.83	0.34	0.61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17	0.21	5.83	0.45	0.15	0.36	0.23	8.87	0.66	1.04
최종재	0.62	0.58	1.07	1.54	1.88	1.00	0.74	1.56	1.90	2.71
자본재	0.80	0.75	1.26	1.28	1.88	1.31	0.96	1.92	1.99	2.9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0.92	0.86	1.45	0.89	1.16	1.35	0.99	1.98	1.20	3.00
산업용 운송장비	0.00	0.00	0.03	3.85	6.65	0.00	0.00	0.26	24.00	2.41
소비재	0.15	0.15	0.58	2.21	1.86	0.22	0.20	0.67	1.68	2.04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1	0.11	0.00	2.20	0.00	0.00	0.13	0.00	1.61	0.02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12	0.08	0.04	4.28	0.09	0.16	0.06	0.02	1.98	1.24
승용차	0.05	0.00	1.33	0.19	9.44	2.12	0.00	21.16	12.11	10.68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0	0.30	1.20	4.17	0.29	0.00	5.47	0.80	2.78	0.60
내구소비재	0.26	0.21	0.23	0.92	0.76	0.27	0.15	0.23	0.85	1.49
반내구소비재	0.29	0.40	1.17	0.53	0.28	0.58	0.43	1.50	0.83	0.86
비내구소비재	0.32	0.29	1.23	1.39	1.85	0.37	0.30	1.56	1.21	6.48
미분류	0.00	0.00	0.00	0.10	0.00	0.00	0.00	0.00	0.05	0.00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코드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다. 업종별 경쟁 현황

■ [국가별 점유율]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미국, 제조업은 일본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2014년 미국의 농림수산업과 광업 시장점유율은 각각 16.1%, 2.1%로, 2009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주요국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음.
- 2014년 일본과 대만의 제조업 시장점유율은 각각 9.6%, 9.4%로 가장 높았으며, 세부업종별로 일본은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대만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일본은 해당 3개 업종 외에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 섬유제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대비 감소하면서 대만이 1위를 차지함.
- 그 밖에 미국은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에서, 독일은 의약품 물질·의약품 제조업에서 시장점유율이 특히 높음.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의 경우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화학물질·제품제조업은 일본, 대만에 이어 3위(10.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일본에 이어 2위(11.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대만에 이어 2위(13.1%)임.
- 세 업종은 일본, 대만과의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업종으로 세 국가 간에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편임.
- 2014년 한국의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과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시장점유율이 1위이지만 각각 2.3%, 1.2%로 점유율 수치가 높지 않음.

표 13.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업종별)

(단위: %)

분류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2	0.4	0.5	44.3	0.0	0.1	0.1	0.7	16.1	0.0
광업	0.1	0.4	0.6	6.2	0.1	0.1	0.1	0.4	2.1	0.0
금속 광업	0.0	0.1	0.1	7.0	0.1	0.1	0.1	0.0	2.3	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3	1.2	2.8	3.1	0.3	0.1	0.2	1.9	1.7	0.1
제조업	6.9	8.2	15.0	7.3	6.5	7.1	9.4	9.6	5.5	3.1
식료품 제조업	0.4	0.5	0.3	21.0	0.2	0.3	0.4	0.1	9.9	1.2
음료 제조업	0.4	2.7	0.9	9.7	5.0	1.5	0.9	0.5	3.4	6.0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7	9.4	18.2	3.9	4.4	2.3	7.9	7.5	3.8	4.0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2.3	0.2	0.9	0.3	0.2	2.3	0.4	0.6	0.3	0.2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5	5.7	1.1	18.0	2.9	0.8	3.5	0.3	13.1	0.3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	0.2	0.1	9.6	4.4	0.0	0.1	0.0	7.8	1.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3	2.1	7.0	24.8	4.5	2.3	2.2	7.2	27.0	2.5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2	0.9	17.3	31.5	13.7	0.2	3.5	4.3	33.7	2.7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0.9	0.4	1.0	0.9	0.3	1.2	0.4	0.4	1.1	0.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5	13.8	14.3	11.1	5.3	10.2	11.5	12.2	9.5	4.5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7	1.9	12.8	9.9	16.6	1.0	2.0	8.2	4.7	17.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	8.6	39.0	10.0	3.9	11.3	10.3	28.0	6.7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	6.6	22.3	5.8	4.6	3.3	5.4	14.8	3.2	2.9
1차 금속 제조업	5.0	4.4	11.9	2.7	12.9	6.8	4.8	14.3	7.0	6.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4.1	4.6	57.8	6.3	4.4	4.6	3.6	40.7	6.6	5.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4.6	17.2	6.8	4.3	1.5	13.1	19.5	4.1	1.4	0.7
의료·정밀·광학·기·가·시·계 제조업	3.5	3.4	23.5	19.5	11.8	4.8	5.7	17.7	16.7	12.3
전기장비 제조업	2.9	4.6	28.0	7.0	11.1	4.7	5.1	17.2	6.1	9.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5	6.2	39.9	6.7	14.4	7.0	8.7	28.5	5.5	11.5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5	0.4	73.1	1.4	14.3	1.8	0.5	70.8	3.9	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9	1.6	18.9	25.5	28.7	2.0	4.4	30.0	60.4	5.3
가구 제조업	1.0	1.6	71.7	2.6	5.5	0.6	4.8	37.4	4.7	3.5
기타 제품 제조업	0.5	2.1	17.2	3.6	10.0	0.6	1.2	18.7	3.1	1.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분류	0.0	0.0	14.4	85.5	0.0	0.0	0.0	0.0	0.2	0.0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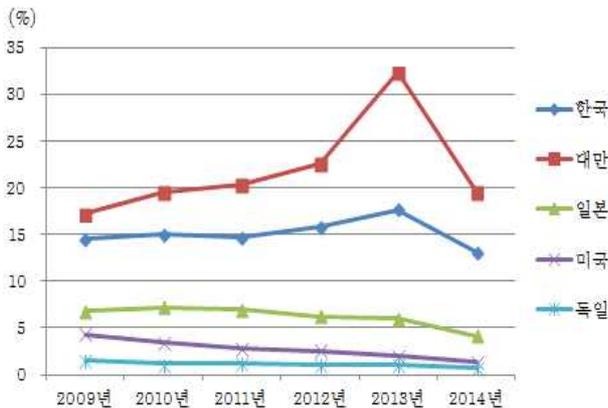
■ [업종별 점유율] 내수용 수입 비중이 큰 6개 업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2014년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

였고, 나머지 업종의 시장점유율은 정체 또는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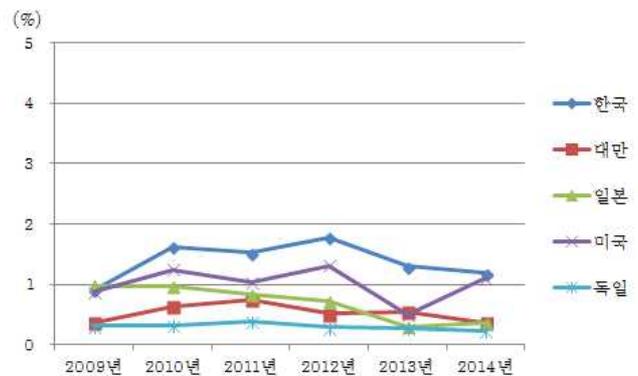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2014년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이 38.8%에 이르나 2013년 대비 20.2%p 감소하였고 특히 대만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짐.
- 코크스·석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3.3%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각국의 시장점유율상 큰 변화는 없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2014년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이 47.9%에 이르나, 2009~14년 일본과 대만의 점유율은 다소 하락하였고, 한국, 미국, 독일의 점유율은 정체 현상을 보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2009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4년 미국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독일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식품 제조업은 미국이 절대적인 시장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9. 5개국의 주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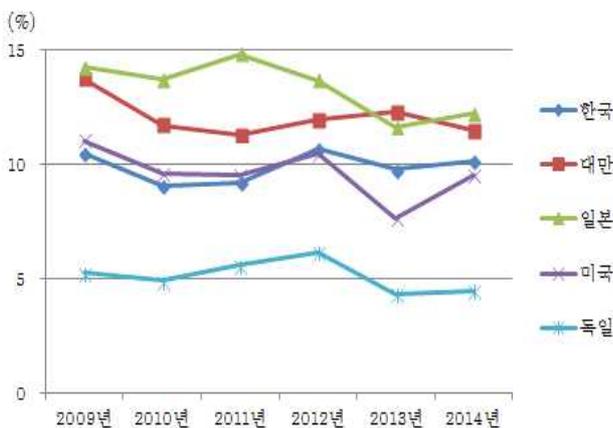
(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코크스·석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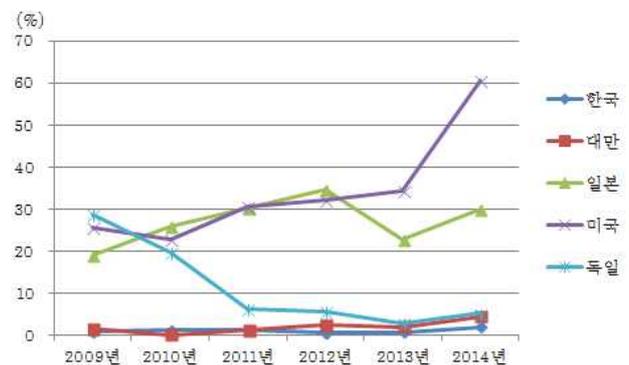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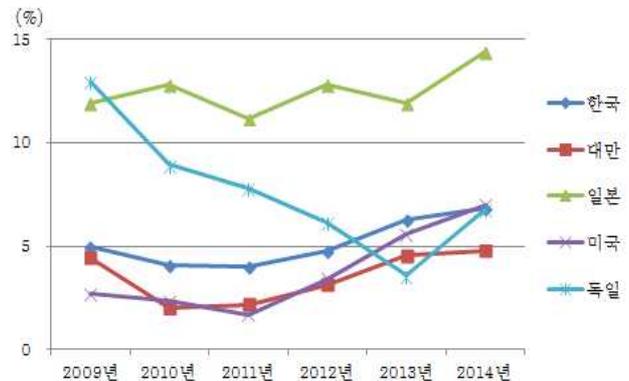


그림 9. 계속

(5) 식품 제조업

(6) 1차 금속 제조업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 비해 비교우위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 중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수출 업종이 2009년 3개에서 2014년 5개로 소폭 증가함.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업종은 없었던 반면, 2개 업종이 비교우위 업종으로 전환됨.
-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은 1차 금속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임.
- 제조업 전체 비교우위가 2009년 대비 다소 강화되었으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업종이 5개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광둥성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⁶⁾ 중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4개 업종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제조업은 주요 5개국⁷⁾이 모두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농림수산업에서는 미국만 비교우위를 확보함.

- 주요 5개국의 제조업 수출은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 비교우위가 모두 강화됨.
- 광둥성의 내수용 수입 상위 5대 업종⁷⁾에서 한국은 식료품 제조업과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3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냄.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5개국 모두 비교열위를 보인 데 반해,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확보
- 광둥성의 최대 수입업종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비교우위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만의 비교우위가 더 강하게 나타남.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에서 한국과 대만은 각각 5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인 데 반해, 일본과 미국은 각각 13개 업종, 독일은 16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냄.

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이 이에 해당함.

7)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이 이에 해당함.

- 독일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업종은 대체로 수입규모가 크지 않은 업종이며, 수입 상위 5대 업종에서 독일이 비교우위를 나타낸 업종은 2개에 불과

표 14. 주요국의 광둥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업종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03	0.05	0.04	5.43	0.00	0.01	0.01	0.09	3.25	0.00
광업	0.01	0.05	0.04	0.76	0.02	0.02	0.02	0.06	0.43	0.01
금속 광업	0.00	0.02	0.00	0.86	0.01	0.01	0.01	0.00	0.46	0.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05	0.15	0.20	0.38	0.05	0.03	0.03	0.25	0.34	0.05
제조업	1.05	1.05	1.05	0.89	1.05	1.27	1.27	1.27	1.11	1.27
식품 제조업	0.06	0.06	0.02	2.58	0.03	0.06	0.06	0.01	2.00	0.50
음료 제조업	0.07	0.35	0.06	1.19	0.80	0.27	0.12	0.06	0.68	2.49
담배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0.26	1.20	1.27	0.48	0.71	0.41	1.07	0.98	0.76	1.6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34	0.02	0.06	0.04	0.04	0.42	0.06	0.07	0.07	0.09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07	0.73	0.08	2.20	0.47	0.14	0.47	0.04	2.65	0.13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0	0.03	0.01	1.18	0.71	0.01	0.01	0.00	1.58	0.49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20	0.27	0.49	3.05	0.72	0.42	0.30	0.95	5.46	1.01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3	0.11	1.20	3.87	2.20	0.04	0.47	0.57	6.81	1.10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0.14	0.05	0.07	0.11	0.05	0.21	0.05	0.05	0.22	0.09
화학물질 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60	1.76	0.99	1.36	0.85	1.81	1.55	1.61	1.93	1.85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25	0.24	0.89	1.21	2.66	0.18	0.27	1.08	0.96	7.29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8	1.10	2.71	1.23	0.62	2.02	1.39	3.69	1.36	1.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8	0.84	1.55	0.71	0.74	0.58	0.72	1.95	0.64	1.20
1차 금속 제조업	0.76	0.57	0.83	0.33	2.08	1.21	0.65	1.89	1.41	2.7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0.63	0.59	4.03	0.77	0.71	0.81	0.49	5.36	1.33	2.1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23	2.20	0.48	0.53	0.24	2.33	2.64	0.55	0.28	0.30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0.53	0.44	1.64	2.40	1.90	0.85	0.77	2.34	3.37	5.05
전기장비 제조업	0.44	0.59	1.95	0.86	1.78	0.83	0.69	2.26	1.24	3.84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0.69	0.80	2.77	0.83	2.31	1.24	1.17	3.76	1.11	4.7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08	0.05	5.09	0.17	2.31	0.31	0.07	9.34	0.79	1.0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4	0.20	1.32	3.12	4.62	0.36	0.60	3.96	12.22	2.17
가구 제조업	0.16	0.21	4.99	0.32	0.88	0.11	0.64	4.93	0.95	1.43
기타 제품 제조업	0.08	0.27	1.20	0.44	1.61	0.10	0.16	2.46	0.64	0.52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분류	0.00	0.00	1.00	10.49	0.00	0.00	0.00	0.00	0.05	0.00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5.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광둥성 내수용 수입] 광둥성의 내수용 수입은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관련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음.
 - 광둥성은 과거 가공무역이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3년 이후 일반무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가공무역 비중을 상회함.
 - 광둥성은 가공단계별로 중간재,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며, 그 밖에 최종재 중 △ 가정용 식음료품 △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 비내구소비재의 중국 내 수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임.
 - 소비자 중 가공된 식음료품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아용 조제식료품, 정미, 냉동 절단육·설육 등이 주요 수입품목임.
 - 업종별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휴대폰 제조에 쓰이는 집적회로,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입이 주를 이룸.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은 중국 전체 수입의 55.9%에 달함.
 - 이외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음료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은 광둥성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중국 내 비중이 커서 광둥성 수입 집중도가 큰 업종임.
- [한국의 수출]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둥성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관련 부품·부분품임.
 - 한국의 대광둥성 내수용 수출은 2009~14년 연평균 16.5% 증가하였으나, 대광둥성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머물러 대중국 내수용 수출 평균(33.4%)보다 낮음.
 - 한국의 내수용 수출은 광둥성의 내수용 특화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메모리나 프로세서, 컨트롤러 등과 같은 집적회로, 반도체 부품을 위주로 수출함.
 -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⁸⁾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광둥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품목 모두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가공단계별로는 자본재 부품·부분품과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시장점유율에서 1위 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함.
-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광둥성 수입시장의 변화에 맞춰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패턴에서 내수용 수출 확대에 주력해야 하고, 수입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내수용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광둥성 수입구조는 내수용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현지 내수용 수입 시장을 겨냥한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관련 부품·부분품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으나, 해당 수입시장에서 일본, 대만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더욱이 해당 품목은 한국의 대광둥성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임에도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나 기타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8) 시장점유율 분석과 시장비교우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공단계별 또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이나 업종을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품목(또는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품목이나 업종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국가를 수입시장 내 경쟁국가로 분류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급요

- 최종재 중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와 소비재 중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비내구소비재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광둥성의 가정용 식음료품과 비내구 소비재의 중국 내 수입 비중은 각각 29.5%, 20.2%로 대표적인 최종재 수입 지역인 베이징(8.1%, 13.5%)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식음료품과 비내구소비재의 경우 중국에서도 광둥성을 통한 수입 비중이 크므로 광둥성을 해당 품목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통망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업종별로 볼 때 광둥성의 수입 중 △ 코카스·석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 △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수입수요가 큰 업종임. 따라서 관련 업종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고객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가공식품 등 소비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물류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광둥성의 국제전자상거래(해외직구) 시범사업과 같은 해당 지방정부의 소비육성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긴급요

- 광둥성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둥성을 통해 수입한 뒤 중국 내 육상물류를 이용하여 광둥성에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통관과정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무역 원활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행의 유통방식은 육송 물류비의 증가, 농식품 유통기간의 실질적 단축 등으로 인해 매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광저우시는 2013년 화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관련 시범사업과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정부가 육성·장려하는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재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광저우시는 우정국(广东邮政快递服务有限公司)을 주관 기관으로 하고, 과징무역전자상거래회사(跨境电商电子商务有限公司)를 대리업체로 지정하여 시범사업(2014~17년)을 수행 중임.
- 해외기업이 중국 국내·외에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종 우대정책과 행정간소화 정책 등으로 일정 금액의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해외에서 직접 포장하여 배송하는 제품 중 화장품, 식품 및 보건제품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등 수입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 내 관련 업체들은 생활용품, 농식품, 임산부 용품 및 유아용품, 가방, 가정용 의료·보건·미용 기기, 주방용품 및 소형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등의 수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여 진출하는 맞춤형 시장개척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부용, 정지현. 2015.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 세계 HS 정보시스템. E-book. http://www.customs.go.kr/wtm/images/egovframework/hs_guide/movie/ebook/TELDIV.html(검색일: 2015. 11. 24).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검색일: 2015. 11. 9~11. 30).
- 중국 해관통계.
- CEIC Database.
- 广东省统计信息网. 广东统计年鉴(검색일: 2015. 11. 9~11. 30).
- 广东省统计信息网. 2015. 「2014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gdstats.gov.cn/tjzl/tjgb/201507/t20150722_310084.html(검색일: 2015. 11. 9).
- 广东省统计信息网. 2014. 「2013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gdstats.gov.cn/tjzl/tjgb/201403/t20140305_139764.html(검색일: 2015. 11. 9).
- 广东省统计信息网. 2013. 「2012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gdstats.gov.cn/tjzl/tjgb/201303/t20130301_99081.html(검색일: 2015. 11. 9).
- 广东省统计信息网. 2012. 「2011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gdstats.gov.cn/tjzl/tjgb/201202/t20120223_89677.html(검색일: 2015. 11. 9).
- 广东省统计信息网. 2011. 「2010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gdstats.gov.cn/tjzl/tjgb/201103/t20110301_81848.html(검색일: 2015. 11. 9).
- 广东省统计信息网. 2010. 「2009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gdstats.gov.cn/tjzl/tjgb/201002/t20100225_74438.html(검색일: 2015. 11. 9).
- 中国统计局. 中国统计年鉴(검색일: 2015. 11. 9~11. 30).
- 通信产业网. 2015. 「广东省人民政府副省长温国辉: 广东省是全国最大的信息产业基地」. http://www.ccidcom.com/include/article_wexin.php?url=/html/zhizaoshang/201511/01-245711.html(검색일: 2015. 11. 24).